EU ‘중국산 인버터 배제’… 국내 PCS 업계 기회 열리나

〈전력변환장치〉

전력망 보안에 장비 재편 가속

LS일렉트릭 英 ESS 실적 부각

HD현대일렉트릭 장비 확대

효성중공업 ESS 사업 다변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렸던 국내 전력 변환 장비 업계에 유럽발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전력망 보안을 이유로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를 배제함에 따라 ESS용 전력변환장치(PCS) 등 국내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쌓아온 분야를 중심으로 비중국산 장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월드 2026 전시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4일 역내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ESS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인버터가 사이버 공격이나 원격 제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는 유럽산 제품과 한국·일본·미국·스위스 등 유사 입장 국가 제품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버터 시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전 세계 인버터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화웨이와 선그로우는 10년 이상 글로벌 인버터 시장 1·2위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가격 중심 경쟁이 강해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키워왔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존재감을 확대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들은 PCS 분야에서 운영 경험을 일부 축적해 왔다.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는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PCS는 충·방전 제어와 출력 조절, 계통 안정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해 기술 난도가 더 높다.

대표 사례는 LS일렉트릭이다. LS일렉트릭은 영국 보틀리 지역에서 50MW급 PCS와 114MWh 규모 ESS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영국 전력망 사업자인 내셔널그리드 연계 실적을 확보했다. 북미 PCS 1위 업체인 파워일렉트로닉스와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 HD현대플라스포를 통해 인버터 등 전력변환 장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도 ESS·PCS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흐름은 미국 변압기 시장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공급 부족에도 중국산 변압기 도입을 제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처럼, 전력망 핵심 장비가 안보 이슈와 연결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도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높지만, 최근 정부와 업계는 중소 인버터 업체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협력을 확대하며 국산화 기반을 다시 넓히고 있다. 유럽에서 비중국산 장비 수요가 커질 경우 국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중앙 제어 기반 전력망 운영이 강화될수록 인버터는 단순 전력 변환 장치를 넘어 전력망 제어 핵심 장치로 역할이 확대된다"며 "보안 이슈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산 장비 채택 논의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중기부 장·차관도 뛴다… ‘모두의 창업’ 열기 확산

한성숙 장관, 대구대서 청년 간담회
이병권 2차관, 동신대 창업 콘서트

‘모두의 창업’ 열기를 띄우기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차관이 모두 나서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는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를, 이병권 제2차관은 전남 나주 동신대를 각각 찾아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대에선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대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면서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 더우분투 나도연 대표는 "후배 창업가들도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 선을 긋기보다 중기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든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동신대에서 ‘로컬 창업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차관은 "로컬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창업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지역기반 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이후 이 차관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 시장인 굴비골영광시장을 방문해 주요품목 가격흐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한편,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수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장마철 이전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캠퍼스 현장 방문을 공고 마감 전까지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5일(4월19일)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데이어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도전이 이어지며 이달 1일에는 2만 번째 도전자가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中企 ESG 대응, 진단 넘어 투자까지 잇는다

대중기협력재단, KOTRA 업무협약
CBAM 등 글로벌 규제강화 공동 대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ESG 대응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OTRA와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급망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ESG 규제 대응에 필요한 진단부터 투자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는다.

KOTRA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진단과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대중기협력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설비 도입, 인증 취득,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투자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행형 ESG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VC협회, 삼일PwC와 스타트업 육성 맞손

팁스·스케일업 팁스 기업 대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삼일회계법인(삼일PwC)과 손잡고 팁스·스케일업 팁스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다. VC협회는 삼일 PwC와 6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운영하기위해 마련됐다. ‘팁스(TIPS)’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먼저 발굴 ·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이 필요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와 R&D,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 발굴· 선별 ▲전문 경영 자문 및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투자 유치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과 세미나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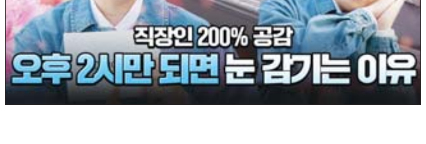
궤도와 수면 고민상담 과학 해법 영상 공개

에이스침대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협업한 스트릿 인터뷰 콘텐츠 ‘전지적 잠견시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전지적 잠견시점’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는 현대인들을 거리에서 만나 수면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해법을 유쾌하게 제시하는 콘텐츠다. 특히 오후 2시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는 직장인과 MZ세대의 현실적인 사연에 집중해 시민들의 반응과 소통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궤도는 에이스침대가 전개하는 TV CF 세계관인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속 수면 과학 연구소장 ‘궤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도 위트 넘치는 ‘과학적 참견’을 선보인다. 여의도공원에서는 점심 식사 후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나른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숙면을 위한 과학적 팁을 제시한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는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한다.

영상은 현장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시민과 함께하는 ‘궤소장을 이겨라’ 게임을 비롯해 수면 관련 오해를 풀어보는 ‘양자택일·OX 퀴즈’,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5자·30초 수면 솔루션’ 등 다채로운 포맷을 도입했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최근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다각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